

개방화시대와 우리의 자세

작년말 UR타결로 지구촌 개방화시대가 선포되었고, 국제경쟁력 강화시대가 오고야 말았다.

우리나라는 '62년 이후 수출전략에 관심을 가지면서도 장기적인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정책이 부재한 상태에서 오늘을 맞이하고 보니 온 나라가 크나 큰 충격과 대책마련에 야단들이다.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려면 품질과 가격이다. 세계시장에서 인정받는 최고의 품질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세계에서 제일 고급의 기술이 있어야 되고, 저렴한 가격으로 경쟁에 이기려면 최고의 생산성 향상과 생산비의 절감이다.

우리나라의 상품이 저렴한 인건비의 덕택으로 그간 가격경쟁에서 어느 정도 견디어 왔지만 국내 인건비의 과도한 상승과 근로의욕의 저하, 특히 3D현상에 의한 생산성 저하 등은 갑작스런 개방화시대에 크나 큰 부담이 되고 있으며, 우리 국민모두에 날벼락과 같은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1차산업인 축산업의 경우는 더욱 당혹스런 입장에 처하게 되었다. 국지전에서 전면전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말았으니, 국제시장에서 싸울 준비가 전혀 안된 상태에서 선전포고를 당한 꼴이 되었다.

정부는 이제서야 국제화, 세계화, 국가경쟁력을 부르짖으며 국민들의 마음속에 다짐을 호소

하고 있다. 국정목표가 국제경쟁력 강화에 두고 있는 느낌이다.

너무 시간이 부족하다. 그리고 여건이 너무나 허술한 형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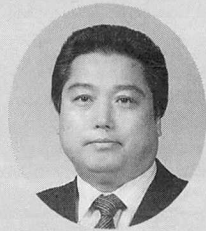
우리는 너무나 우물안의 개구리처럼 귀한 세월을 허비하고 살아왔다고 본다. 그간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처할 생각은 고사하고 집안 싸움에 국력을 낭비했고, 지도자들은 나라의 장래보다는 개인의 영달에 정신을 모두 쏟았고 국민 모두는 나라보다는 개인의 출세에 모든 에너지를 소진하고 살아왔다.

인근의 바다 건너 일본사람들은 일찍부터 국제화, 세계화의 감각으로 살아왔기에 쌀과 쇠고기와 축산물 모두가 개방이 되어도 자연스럽게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필자가 '65년도 축산경영의 연구차 독일했을 때 일본의 축산인은 단체로 비행기를 전세내어 덴마크, 미국, 캐나다로 견학가는 모습을 보고 부럽게 느낀 적이 생각한다.

오늘날 경제대국으로 자리를 굳게 다지고 있는 일본이 있기 까지 그 주요 원동력은 일본인의 국제적 의식구조였다고 생각한다.

일본 사람들은 농민이나 공무원이나 학자들이나 모두 일본을 세계에서 제일가는 나라를 만들겠다 또는 만들 수 있다는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



류 제 창 교수

(건국대학교 축산경영학과)

· 필자 약력

1. 경제학 박사
2. 한국 축산경영학회 초대회장
3. 농림수산부 농업정책 전문위원
4. 국민정신교육 강사
5. 현 한국축산경영학회 고문, 건국대 축산경영학과 교수

음을 조사해본 바가 있다.

문제는 국민 모두의 정신자세이다. 우리 인간은 육체와 정신으로 구성되어 있다.

육체는 정신이 살아가는 집이다. 정신이 나가면 정신나간 사람 또는 송장이 되고 만다. 정신이 인간의 주인이다.

그래서 옛 속담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하였다.

우리가 앞으로 세계에서 잘 사는 선진국, 복지의 나라를 만들고 국제경쟁력을 높여 세계시장에서 한국의 상품들이 당당히 국제수준을 넘어서는 날이 올 때까지 국민모두가 정신을 통일해서 몸과 마음을 합쳐 정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반드시 그날이 올 것이다.

우리나라의 90kg짜리 비육돈 한마리의 생산비가 약 11만~13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우리와 경쟁국인 대만이나 미국 등은 약 10만5천원에서 6만5천원이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지리적 여건으로 대일 돈육수출이 가능하지 않은가.

다행히도 작년도에는 '92년도 대비 33% 이상의 수출량 신장을 보였고 수출액으로는 47.1%나 증가한 사실로도 수출증가의 가능성이 입증되고 있다.

앞으로 더욱 100%~200%의 수출신장을 위한

본격적인 수출전략이 세워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이미 실시하고 있는 장려금의 재검토 상향 조정, 새로운 수출정책의 수립, 도축시설의 근대화 지원 확대, 사료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기자재의 관세 면세,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의 개발, 영양 단위당 가격이 저렴한 사료의 개발, 축산경영자의 정신교육과 경영능력의 교육으로 국제수준 이상의 능력을 가진 경영자로 육성한다면 국제화, 세계화, 개방화시대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이젠 축산이 망했구나! 하고 포기하고 절망하는 정신을 가지고는 세계시장에서 이길 수 없으나, 우리나라가 서울 88올림픽에서 「세계 4강」의 신화를 창조한 기록을 갖고 있으며, 한국의 고유한 맛과 품질을 인정받으며 생산비를 절감하고 생산성을 높여간다면 이웃의 일본시장은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한다.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고 했고 정신통일 무불성사”라고 했다. 건전하고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절대적 신념으로 인간의 무한한 지성을 가진 잠재의식을 동원하여 주어진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정진한다면 돈육의 수출 뿐만 아니라 삼계탕을 비롯한 닭고기, 쇠고기의 일본 상륙도 가능하리라 믿는다. 우리 인간은 생각한 것을 실천할 수 있는 신비한 동물이기 때문이다. 